

성인의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허 수 진 김 보 경[†] 김 범 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피해는 날로 그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생애 초기 불안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불안 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사이에서 통제행동(Controlling behavior)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 가정하고 이론적 모형 검증을 통해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해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제행동이 불안애착 수준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남성은 상대를 통제하는 행동을 더 많이 보였으며, 통제행동을 많이 하는 남성일수록 더 높은 정신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불안애착, 통제행동, 데이트폭력,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

* 본 연구는 허수진(2018)의 석사학위 논문을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 김보경,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 031-249-9193, E-mail : emme7942@gmail.com

과거 미혼남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던 데이트폭력이 생애 전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부터 노년에 이르는 수많은 피해자가 변질된 사랑의 표현으로 위장한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날로 그 흉악성을 보이는데 폭언부터 시작하여 협박, 폭행, 감금 등 살인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30%의 여성이 살아가는 동안 그들의 연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혹은 성폭력을 당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 피해는 2015년 7,692건에서 2016년 8367건, 2017년 10,303건으로 추정되고 있다(경찰청, 2015).

또한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10,283명의 살인범죄의 피해자 중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1,059명으로 전체의 10.3%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도 데이트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사회적 낙인, 수치심, 두려움 등(Overstreet & Quinn, 2013)으로 인해 공식통계상 고려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들이 학대 경험(Fang & Corso, 2007), 낮은 자존감(Papadakaki, Tzamalouka, Chatzifotiou, & Chliaoutakis, 2009), 반사회성 및 경계선 성격장애(Ross & Babcock, 2009) 등 다양한 가해 예측요인을 밝혀온 가운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는 애착이론은 데

이트폭력의 가해자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인간은 안전과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타인과 정서적 교류를 맺으며 애착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Bowlby, 1973). 또한 타인과의 애착형성 과정으로부터 자신, 타인 그리고 관계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의미하는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구성한다(Bowlby, 1973). 자신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스스로의 가치, 능력에 대한 자신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타인에 대한 내적 작동 모델은 타인에 대한 믿음, 기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owlby(1980)는 그러한 영향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고 보았다.

부모의 반응적인 양육 태도는 안정애착 즉,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을 형성하여 자신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 감정의 표현과 공감, 높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Kenny & Gallagher, 2002). 이와 대조적으로 둔감하고 무관심적인 양육태도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는데 이는 부적응적인 관계형성(Kenny & Donaldson, 1991)으로 이어지며 성인기까지 영향을 미친다(Lewis, Feiring, & Rosenthal, 2000).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실시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불안애착이 형성된 개인은 안정애착을 가진 사람들보다 관계에 대해 항상 걱정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Dutton, Saunders, Starzomski, & Bartholomew, 1994)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불안애착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Doumas, Pearson, Elgin, & Mckinley, 2008). 또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남성의 경우,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했으며 상대방의 사생활, 즉, 상대방이 어떤

1) 이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자료번호 032)제공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착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권진숙, 박시현, 2019; Ehrensaft & Vivian, 1999).

파트너에 대한 통제는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느낌, 생각, 혹은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한다(Stets, 1991).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통제 행위와 데이트폭력은 정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Stets, 1992)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는 강한테 비하여 다른 수단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최후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손혜진, 전귀연, 2003). 이러한 통제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데이트폭력의 강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Grahan-Kevan & Archer, 2008).

따라서 본 연구는 날로 흉악해지는 데이트폭력에 초점을 두고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불안애착과 파트너에 대한 통제행동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세 변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행동이 갖는 매개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데이트폭력의 정의 및 심각성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은 연인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심리적 및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Ronfeldt, Kimerling, & Arias, 199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데이트폭력의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그 범위와 유형이 다양하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에만 한정 짓거나(Sugarman & Hotgaling, 1989) 신체적 폭력과 성폭력(Campbell, 2002)만을 포함시켰지만 최근에는

대체로 많은 연구자들이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을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Kuffel & Katz, 2002; Murray & Graybeal, 2007). 본 연구에서는 Fawson(2015)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연인에 대한 데이트폭력을 ‘현재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 혹은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서적·신체적·성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최근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은 폭력과 애정을 별개로 보며, 폭력 후 헤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헤어질 만큼 심하지 않아서’,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하예지, 서미경, 2014)라고 답변하는 등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이은, 헤이, 초롱, 현명호, 2009). 또한 사회적 낙인, 수치심,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Overstreet & Quinn, 2013)으로 인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이타적 망상, 즉,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념(이정은, 2007;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으로 인해 폭력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폭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의 수위가 심각해지고(Marais, 2002) 살인과 같은 흉악한 범죄로 발전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연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하는 폭력은 언어적 학대로 시작하여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chumacher & Leonard, 2005)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살인 사건 중 40%~70%는 그들의 연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Mouzos, 1999). 한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살인범죄의 피해를 당한

총 10,283명 중 매년 10% 가량의 피해자가 연인 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홍영오 등, 2015).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외상뿐만 아니라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불안, 약물남용 등 심각한 심리적 손상(Prospero & Fawson, 2010) 까지도 초래하는데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결과로 발생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Wekerle et al., 2001), 약물남용(Howard & Wang, 2003)은 또 다시 데이트폭력의 피해를 야기하는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한 조절능력의 상실과 잘못된 대처 방식으로 인해 스스로를 유사한 상황에 내몰게 되는 것이다.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초래된 불안, 스트레스, 약물남용과 같은 심리적 손상은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인임과 동시에 가해요인(Moore et al., 2008)으로 밝혀지며 만성적으로 되풀이 되는 데이트폭력의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그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성인애착의 정의와 특징

애착이론은 유아가 부모로부터 분리되면 보이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Bowlby(1979)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다. Bowlby(1979)에 따르면 유아는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틀(Bretherton, 1991) 즉,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며 타인과 맺는 관계의 질을 결정 짓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애착체계에 근거하여 Hazan과 Shaver(1987)는 성인기의 친밀한 관계가 유아와 부모 간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안정애착, 회피애착, 불안-양가애착의 세 가지 성인애착유형을 제안하였다. 이후 성인애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애착을 여러 범주로 접근하기보다 회피애착과 불안애착, 두 가지 ‘차원’의 접근 방식의 설명력이 더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Fraley & Waller, 1998).

이에 Brennan과 Shaver(1998)는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문항을 종합하여 1,0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모든 애착유형검사에서 회피형과 불안형의 두 가지 차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Brennan과 Shaver(1998)에 따르면 회피차원은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타인표상차원과 관련이 있는 반면, 불안차원은 거절을 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기표상차원을 나타낸다. 두 차원에서 모두에서 낮은 점수를 보이는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고 타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노출(self-disclosure), 즉,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는 특징을 보인다(Dominique & Mollen, 2009).

선행연구들은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 부적응적인 관계형성(Besharat, 2003; Bookwala & Zdebiuk, 1998)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는데 이들은 우울 및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적절히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진희, 장문선, 2014). 또한 이들은 친밀한 관계로부터 벗어나려 하거나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모두 같은 수준의 관계 갈등을 겪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불안정한 성인애착과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다른 요인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개인은 사회적 단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결

과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하여 관계 형성에 부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Feeney & Noller, 1994). 두 가지 성인애착 유형 중 불안애착은 사소한 단서에도 거절당하고 버림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관계에 더 사로잡히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상대방으로부터 관심을 더 요구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Brennan & Shaver, 1998).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험 연구에 의하면 높은 불안애착을 가진 피험자들은 사람들의 감정 변화, 즉, 중립적인 감정에서 정서적으로 각성되는 시점과 정서적으로 각성된 상태에서 중립적인 감정으로 돌아오는 시점을 판단해보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두 가지 모든 시점에서 낮은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보다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raley, Niedenthal, Marks, Brumbaugh, & Vicary, 2006). 이는 친밀한 관계에서 높은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파트너의 감정에 대해 부정확한 결론을 내린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Tucker & Anders, 1999).

이러한 결과는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 갈등을 더 겪으며(Levy & Davis, 1988) 관계가 끝나는 것에 대한 취약성(Simpson, Rholes, & Phillips, 1996)을 보이는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정서 및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감정의 격화, 분노 및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Gormley, 2005)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McNulty & Hellmuth, 2008; Moore, Hellmuth, Ramsey, & Kahler, 2006)에서 수차례 위협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이 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Maysless(1991)는 유아가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보이는 시위 행동과 유사하게 데이트폭력은 애착 유형에 따른 일종의 시위라고 주장하였다. 즉, 성인의 시위 행동은 연인 관계에서 인지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략이며 애착이 불안정 할 때 난폭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Maysless(1991)의 주장과 일치하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는데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성인들은 심리적 학대 및 신체적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진화, 2010; 권오정, 장용언, 2019; Bookwala & Zdaniuk, 1998; Schumacher, Slep, & Heyman, 2001) 구체적으로 심리적 학대는 불안애착의 특성인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관심,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질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urphy & Hoover, 1999). 또한 친밀한 대상에게 폭력을 사용하여 폭력 처치 프로그램에 참여한 남성의 경우, 폭력적이지 않은 남성보다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은 높은 불안애착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 조절의 어려움이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onzález, Lafontaine, & Levesque, 2016). 이러한 폭력성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관심과 지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Kesner, Julian,

& McKenny, 1997).

통제행동과 불안애착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만성적으로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며 관계 불안,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한다(Lafontaine, González, Mloquin, & Levesque, 2016). 높은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의 애정을 갈망하고 상대방과 심리적으로 친밀한 교류를 원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소한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결과적으로 과잉활성화 전략(hyper-activating strategies)(Mikulincer & Shaver, 2007)을 사용한다. 이는 심리적 거리감에 대한 지각 수준이 자신의 기준에 부합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와 관련이 있다(Mikulincer & Shaver, 2007).

통제행동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느낌, 생각, 혹은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한다(Stets, 1991). 친밀한 관계 형성의 실패는 분노, 혼란,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하고 불안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Lyons-Ruth & Jacobvitz, 1999). 즉, 불안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관계 단절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잦은 통화, 방문 등 상대방과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려는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관계를 악화시키고(Gormley, 2005) 상대방이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통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González et al., 2016). 이와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 연구에서는 커플을 모집하여 애착 유

형을 측정하고 갈등 상황을 녹화하여 분석 자료에 활용하였다. 실험자가 ‘연인 관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리고 자리를 비우자 불안애착을 형성한 성인의 경우,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대화를 강압적으로 통제하려는 행동을 많이 보였고 목소리의 톤, 표정 또한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나타낸 반면,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사소한 언쟁이 발생해도 금방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easey, 2002).

통제행동과 데이트폭력

파트너에 대한 통제행동은 연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쥘취하려는 욕구로부터 발생한다(Swan, Gambone, Caldwell, Sullivan, & Snow, 2008).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 통제행동은 문화적으로 규정된 성 고정관념, 즉, 남성은 공격적, 주도적인 반면 여성은 순종적, 의존적이라는 태도를 반영하며(Stark, 2006)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주도권 하에 가두려는 도구로써 통제행동을 사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혹은 직장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일상 전반에 걸쳐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은 폭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8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으며(Allard, Albelda, Colten, & Cosenza, 1997) 높은 통제행동을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신체적 폭력 및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ampbell, Sharps, & Glass, 2000). 또한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가해자 중 38.1%가 상대방의 정상적인 생활을 통제했으며 58.5%의 가해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상대방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zawa, Hotaling,

Klein, & Byrne, 1999).

많은 연구들은 통제행동이 데이트폭력의 강한 예측변인이라는 결과를 보여준다(Graham-Kevan & Archer, 2008; Fawson, 2015; Aizpurua, Copp, Ricarte, & Vazquez, 2017). 폭력에 대한 태도와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한 연구에서는 통제행동이 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인 사람일지라도 통제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데이트폭력의 수준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awson, 2015). 이는 통제행동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별해내는 좋은 예측 변인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Follingstad, Bradley, Laughlin, & Burke, 1999).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이에서 통제행동이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연구(자료번호 32)중, 성인 남성 2,00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그리고 통제행동의 정도가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남성 성인의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친밀한 관계

에서의 통제행동이 불안애착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교제 경험이 있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홍영오 등, 2015).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인의 가해요인을 파악하고자 총 4,000명의 설문지 중 남성에 해당되는 2,0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자료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나이, 거주지, 소득 등), 조사대상자의 교제 당시 상대방의 특징, 통제행동, 데이트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심리적, 신체적, 성적 피해, 상해), 피해에 대한 조치, 신고하지 않은 이유, 피해당시 음주여부(가해자, 피해자), 결별 후 상대방의 반응 및 생활변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자존감, 회피애착, 불안애착, 경계선 성격장애, 폭력의 허용도, 부모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경험 등을 측정하였다. 이 중 본 연구진은 연구가설에 부합되는 데이트폭력 가해경험과 통제행동, 그리고 불안애착을 일부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자의 교제 당시 평균 연령은 28.8세로 20대가 69.7%로 가장 높았고 30대 16.8%, 10대 10.7%, 40대 2.4%, 그리고 50대 0.6%로 나타났다. 교제 당시 월 개인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인 32.9%로 가장 높았으며 100만원 미만이 29.2%, 200~300만원 미만이 15.6% 순이었다. 교육수준은 4년제 대학 졸업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학 졸업이 18.0%, 고등학교 졸업이 18.3%, 대학원 석사졸업이 5.1% 그리고 중학교 졸업

이하가 0.8%로 나타났다.

불안애착

불안애착은 Brennan, Clarks, & Shaver(1998)이 개발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입증된 ‘친밀한 관계에서의 경험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을 황경옥(2001)이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성인애착유형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회피애착 18문항, 불안애착 18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불안애착은 ‘나는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편이다’, ‘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자주 확인받고 싶어한다’,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된다’ 등 친밀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안감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에서는 척도값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불안애착이 강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8이었다.

통제행동

친밀한 관계에서의 통제행동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문항으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에서는 ‘상대방을 가족과 친구들과로부터 고립되게 하거나 행동을 감시하거나 교육, 직업, 의료 및 재정 등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홍영오 등, 2015)를 포함하고 있으나 이 정의는 부부 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핸드폰, 이메일,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점검하는 행위, 옷차림을 제한하는 행위, 써클이나 모임 활동을 못하게 하는 행위,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하는 행위, 통화가 될 때

까지 계속 전화하는 행위’ 등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제한, 간섭, 의심과 관련한 내용에 1) 없음 2)일년에 한두번 3)한달에 한두번 4)1주일에 1회 이상 5)거의매일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그 빈도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분석에서는 척도값의 평균을 이용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과거 통제행동을 더 많이 하였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5이었다.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의 경우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이 제작한 갈등책략 척도 개정판(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Form A, Archer, 1999)을 사용하였다. CTS-2는 친밀한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때 자신이 사용하는 책략을 심리적 폭력(7문항), 신체적 폭력(12문항), 성폭력(11문항)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심리적 폭력의 측정은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향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른 적이 있다’, ‘화가 나서 발을 세계 구르거나 문을 세계 닫은 적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신체적 폭력의 측정은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던진 적이 있다’, ‘팔을 비틀거나 꼬집은 적이 있다’, ‘뺨을 때린 적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성폭력을 측정하는 문항은 ‘여자친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여자친구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성관계(성기 삽입)을 하기 위해 위협한 적이 있다’ 등과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없음’ 1점에서

‘거의 매일’ 5점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의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TS-2는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에 대한 연구와 아동기 학대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 등과 같은 국내 논문에서 데이트폭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도하나, 2017; 홍영오, 2017).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970으로 나타났으며 각 하위 유형별 내적 합치도는 정신적 폭력 .947, 신체적폭력 .976, 성폭력 .919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자료분석을 위해 SPSS Statistics 21.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되었으며,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

향에서 통제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1.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하위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하위 변인들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불안애착은 정신적 폭력($r=.201$), 신체적 폭력($r=.177$), 성폭력($r=.17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각각 $p<.01$)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불안애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통제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행동의 경우, 통계

표 1. 주요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6①	6②
1. 연령								
2. 최종학력	.136**							
3. 한달개입수입	-.005	.008						
4. 불안애착	-.031	-.056*	-.033					
5. 통제행동	-.055*	-.023	.006	.283**				
6. 데이트 폭력	.051*	-.033	.018	.205**	.611**			
① 정신적 폭력	.052*	-.050*	.002	.201**	.641**	.843**		
② 신체적 폭력	.007	-.029	.027	.177**	.537**	.930**	.717**	
③ 성폭력	.082**	-.015	.016	.171**	.473**	.880**	.586**	.723**

* $p<.05$, ** $p<.01$

적으로 모두 유의한 수준에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하위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관계를 살펴보면, 통제행동은 정신적 폭력($r=.641$), 신체적 폭력($r=.537$), 성폭력($r=.473$)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각각 $p<.01$) 정적 상관을 보였다.

성인의 불안애착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앞서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그리고 통제행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불안애착이 실제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효과가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동을 통해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인을 독립변인으로, 매개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독립 변인이 매개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둘째, 독립변인을 독립 변인으로, 종속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에 나타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세 번째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 시, 불안애착, 통제행동,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최종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매개정도를 확인하였다.

속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독립 변인으로, 종속 변인을 종속 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이때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보다 작을 경우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회귀분석 결과에 나타난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세 번째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독립 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경우 완전 매개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분석 시, 불안애착, 통제행동, 데이트폭력 가해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연령, 최종학력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과 매개정도를 확인하였다.

통제행동의 매개효과(신체적 폭력)

1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매개변인인 상대방의 행동 통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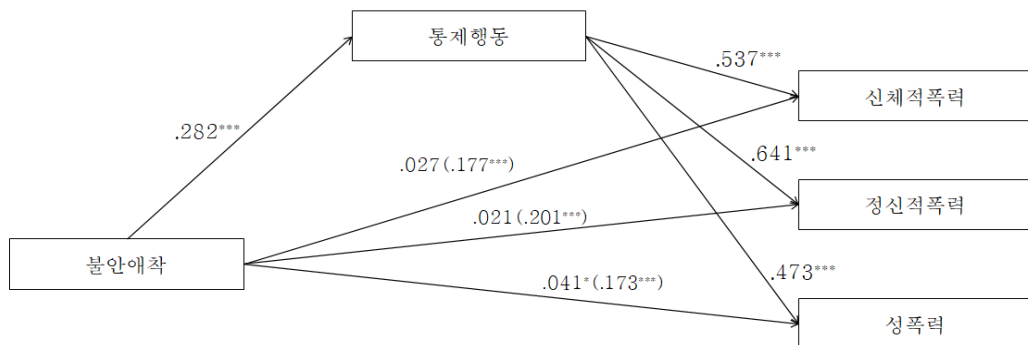


그림 1.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eta=.282, p<.001$). 둘째, 신체적 폭력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두 번째 단계 조건도 충족되었다($\beta=.171, p<.001$). 셋째, 불안애착과 매개변인인 상대방의 행동 통제를 함께 독립변인에 투입하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동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므로($\beta=.531, p<.001$)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 번째 단계($\beta=.027$)가 두 번째 단계($\beta=.177$)와 비교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beta=.177 \rightarrow \beta=.027$)로 Baron과 Kenny(1986)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즉,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는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obel 검증 결과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z=11.993, p<.001$).

통제행동의 매개효과(정신적폭력)

1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매개변인인 상대방의 행동 통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eta=.282, p<.001$). 둘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두 번째 단계 조건도 충족되었다($\beta=.205, p<.001$).

셋째, 불안애착과 매개변인인 상대방의 행동 통제를 함께 독립변인에 투입하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동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므로($\beta=.606, p<.001$)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 번째 단계($\beta=.034$)가 두 번째 단계($\beta=.205$)와 비교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beta=.206 \rightarrow \beta=.035$)로 Baron과 Kenny(1986)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즉,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는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obel 검증 결과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z=12.550, p<.001$).

통제행동의 매개효과(성폭력)

1단계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이 매개변인인 상대방의 행동 통제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여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의 조건을 충족시켰다($\beta=.282, p<.001$). 둘째,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두 번째 회귀분석 단계에서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두 번째 단계 조건도 충족되었다($\beta=.205, p<.001$). 셋째, 불안애착과 매개변인인 상대방의 행동 통제를 함께 독립변인에 투입하고,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인인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표 2.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관계에서 통제행동의 매개효과

단계	통제변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R ²	F
				β_1	β_2	β_3	β_4	β_5	β_6		
1	연령			-.053*	-.046*					.082	59.797*** ($\Delta R^2 = .079^{***}$)
	학력		통제행동	-.016	-.001						
			불안애착			.282***					
2	연령					.011	.015			.032	22.021*** ($\Delta R^2 = .031$)
	학력		신체폭력			-.03	-.021				
			불안애착				.177***				
3	연령							.011	.04*	.290	204.178*** ($\Delta R^2 = .289^{***}$)
	학력		신체폭력					-.03	-.02		
			불안애착						.027		
			통제행동						.531***		
2	연령					.06**	.065**			.046	32.166*** ($\Delta R^2 = .045^{***}$)
	학력		정신폭력			-.058*	-.047*				
			불안애착				.201***				
3	연령							.06**	.094***	.421	362.298*** ($\Delta R^2 = .420^{***}$)
	학력		정신폭력					-.058*	-.046**		
			불안애착						.021		
			통제행동						.639***		
2	연령					.086***	.09***			.037	25.74*** ($\Delta R^2 = .036^{***}$)
	학력		성 폭력			-.027	-.018				
			불안애착				.173***				
3	연령							.086***	.111***	.238	155.600*** ($\Delta R^2 = .236^{***}$)
	학력		성 폭력					-.027	-.017		
			불안애착						.041*		
			통제행동						.468***		

Sobel's test $z = 11.909^{***}$

* $p < .05$, ** $p < .01$, *** $p < .001$

않았고, 상대방에 대한 통제 행동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으므로($\beta = .606, p < .001$) 완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세 번째 단계($\beta = .034$)가 두 번째 단계($\beta = .205$)와 비교해서 세 번째 단계에서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beta = .206 \rightarrow \beta = .035$) Baron과 Kenny(1986)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모두 만족하였다. 즉,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는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Sobel 검증 결과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사이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는 행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확인하였다($z=11.722, p<.001$).

논 의

본 연구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불안애착과 통제행동, 데이트폭력 가해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통제행동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문제의 검증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홍영오 외, 2015) 남성 2,000명의 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애착과 통제행동, 데이트 폭력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주요 변인들 간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불안애착은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하위요인인 정신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폭력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애착이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또한 증가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Bookwala & Zdaniuk, 1998; Schumacher, Slep, & Heyman, 2001)과 일치한다. 안정애착의 경우 긍정적인 내적 작동 모델의 형성으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지각하고 상대방을 신뢰하기 때문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불안애착은 몰두, 질투,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

고, 상대방의 지지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단서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Feeney & Noller, 1994) 지각된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상대방의 느낌, 생각, 혹은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변화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하는 통제행동과 불안애착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도 불안애착과 통제행동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불안애착과 통제행동 사이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 연구(Mikulincer & Shaver,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는 불안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통제행동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제행동은 정신적, 성적, 신체적 폭력과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통제행동의 정도에 따라서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Fawson, 2015)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통제행동이 성인의 불안애착 수준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접근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추가적으로 Sobel(1982)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 통제행동이 불안애착 수준과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이 높은 사람일수록 연인을 통제하는 행동을 많이 하며, 이러한 사람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행동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González(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

한 통제행동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러한 행동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관계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통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떠한 범죄의 원인과 발전과정에 대해 연구를 하는 최종적 목표는 범죄의 예방과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의 위험요인 중 하나인 가해자의 불안 애착과 이로 인한 통제행동의 종합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부터 시작하여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데이트폭력의 정의,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들은 피해자에 집중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해보면, 데이트폭력의 예방을 위해서 데이트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정적인 자아상(Lafontaine et al., 2016), 갈등상황에서 부정적 감정의 조절(Gormley, 2005),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및 질투(Murphy et al., 1998) 등과 같이 불안정한 애착형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학습하는 것이 데이트 폭력 예방 및 재범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함의점은 통제행동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를 높이는 것이 데이트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애착형성의 경우, 아동기에서부터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데이트폭력행동을 교정하

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시 생각해보면, 불안정한 애착형성이 되었지만 통제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데이트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관계에서 통제행동이 완전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불안애착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보이는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회적 단서의 정확한 해석 및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는 치료적 개입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신뢰를 갖고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함께 요구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의 경우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만이 이루어질 뿐 성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홍영오 등, 2015). 하지만 데이트폭력의 경우, 전 연령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결과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대상 연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인의 가해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은 상호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Straus, 2008) 추후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된 갈등척략척도 개정판(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Form A, : Archer, 1999)이 번역 후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지만 도구에 대한 타당도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갈등척략척도 개정판의 타당화 연구를 통해 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불안애착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행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이 외에도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매개변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후속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변인들을 탐구하고 추후 치료적 개입에 기초 자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진화. (2010). 아동기 외상과 성인애착, 데이트 폭력의 관계. *미래놀이상담연구*, 6, 67-87.
- 경찰청 (2015). *경찰통계연보*.
- 권오정, & 장용언. (2019).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1. *지역과 세계(구 사회과학연구)*, 43(1), 235-263.
- 권진숙, & 박시현. (2019). 데이트 폭력 여성피해자의 강압적 통제 경험.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9(1), 46-58
- 손혜진, 전귀연 (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1(2), 43-63.
- 원진희, 장문선 (2014). 애착과 우울간의 관계에서사회지향성 및 자율지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41-361.
- 이은, 헤이, 초롱, & 현명호. (2009).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투자모델에 대하여.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8(2), 385-403.
- 이정은.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투자모델의 타당성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현명호, &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이타적 망상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983-995.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91.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황경옥. (2001). 대학생의 애착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izpurua, E., Copp, J., Ricarte, J. J., & Vázquez, D. (2017). Controlling behaviors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mong women in Spain: An examination of individual, partner, and relationship risk factors for physical and psychological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0886260517723744.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

- Besharat, M. A. (2003). Relation of attachment style with marital conflict. *Psychological reports*, 92, 1135-1140.
- Bookwala, J., & Zdaniuk, B.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and aggressive behavior with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5(2), 175-190.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2).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NY: Basic Books.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New York, NY: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Bretherton, I. (1991). Pouring new wine into old bottles: the social self as internal working model. In M. R. Gunnar, & L.A. Sroufe (Eds.),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Development*, Erlbaum, Hillsdale, NJ, Vol. 26, pp. 71 - 97.
- Buzawa, E., Hotaling, G., Klein, A., & Byrne, J. (2000).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 a proactive court setting -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Campbell, J. C. (2002). Health consequenc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lancet*, 359(9314), 1331-1336.
- Chris Fraley, R., Niedenthal, P. M., Marks, M., Brumbaugh, C., & Vicary, A. (2006). Adult attachment and the perception of emotional expressions: Probing the hyperactivating strategies underlying anxious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74(4), 1163-1190.
- Creasey, G. (2002). Associations between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and conflict management behavior in romantic coup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3), 365.
- Domingue, R., & Mollen, D. (2009). Attachment and conflict communication in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6(5), 678-696.
- Doumas, D. M., Pearson, C. L., Elgin, J. E., & McKinley, L. L. (2008). Adult attachment as a risk factor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mispairing” of partners’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5), 616-634.
- Dutton, D. G., Saunders, K., Starzomski, A., & Bartholomew, K. (1994). Intimacy Anger and Insecure Attachment as Precursors of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4(15), 1367-1386.
- Ehrensaft, M. K., & Vivian, D. (1999). Is partner aggression related to appraisals of coercive control by a partn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14(3), 251-266.
- Fang, X., & Corso, P. S. (2007). Child maltreatment, youth violence,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Developmental relationship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3(4), 281-290.
- Fawson, P. R. (2015). Controlling behaviors as a predictor of partner violence among heterosexual female and male adolescents. *Partner abuse*, 6(2), 217-229.

- Follingstad, D. R., Bradley, R. G., Laughlin, J. E., & Burke, L. (1999). Risk factors and correlates of dating violence: The relevance of examining frequency and severity levels in a college sample. *Violence and victims, 14*(4), 365.
- Fraley, R. C., & Waller, N. G. (1998). Adult attachment patterns: A test of the typological model.
- Franz, M. (2012). *Interpersonal control in dating relationships: how is it affected by trust in one's partner and adult attachment style?* (Master's Thesis, Rowan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rdw.rowan.edu>
- Gormley, B. (2005). An adult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of gender symmetry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Sex Roles, 52*(11-12), 785-795.
- Graham-Kevan, N., & Archer, J. (2008). Does controlling behavior predict physical aggression and violence to partn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7), 539.
- Guzmán-González, M., Lafontaine, M. F., & Levesque, C. (2016). Romantic attachment and physical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in a Chilean sample: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regulation difficulties. *Violence and victims, 31*(5), 854-868.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
- Howard, D. E., & Wang, M. Q. (2003). Risk profiles of adolescent girls who wer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dolescence, 38*(149).
- Johnson, M. P. (2006). Conflict and control: Gender symmetry and asymmetry in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12*(11), 1003-1018.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4), 479.
- Kenny, M. E., & Gallagher, L. A. (2002). Instrumental and social/relational correlates of perceived maternal and paternal attach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ce, 25*(2), 203-219.
- Krantz, G., & Vung, N. D. (2009). The role of controlling behaviour in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its health effects: A population based study from rural Vietnam. *BMC Public Health, 9*(1), 143.
- Kuffel, S. W., & Katz, J. (2002). Preventing physical, psychological, and sexual aggression in college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2*(4), 361-374.
- Levy, M. B., & Davis, K. E. (1988). Lovestyles and attachment styles compared: Their relations to each other and to various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5*(4), 439-471.
- Lewis, M., Feiring, C., & Rosenthal, S. (2000). Attachment over time. *Child development, 71*(3), 707-720.
- Marais, A. (2002).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 what physicians should know.

- Continued Medical Education*, 20, 448-452.
- Maysseless, O. (1991). Adult attachment patterns and courtship violence. *Family relations*, 21-28.
- McNulty, J. K., & Hellmuth, J. C. (2008). Emotion regulation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newlywed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794.
- Moore, T. M., Stuart, G. L., Meehan, J. C., Rhatigan, D., Hellmuth, J. C., & Keen, S. M. (2008). Drug abuse and aggression between intimate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247-274.
- Mouzos, J. (1999). *Femicide: the killing of women in Australia 1989-1998*.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Murphy, C. M., & Hoover, S. A. (1999). Measuring emotional abuse in dating relationships as a multifactorial construct. *Violence and victims*, 14(1), 39-53.
- Murray, C. E., & Graybeal, J. (2007). Methodological review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revention research.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2(10), 1250-1269.
- Noller, P., & Feeney, J. A. (1994). Relationship satisfaction, attachment, and nonverbal accuracy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8(3), 199-221.
- Overstreet, N. M., & Quinn, D. M. (2013). The intimate partner violence stigmatization model and barriers to help seek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35(1), 109-122.
- Papadakaki, M., Tzamalouka, G. S., Chatzifotiou, S., & Chliaoutakis, J. (2009). Seeking for risk fa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in a Greek national sample: The role of self-este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5), 732-750.
- Preacher, K. J., Rucker, D. D., & Hayes, A. F. (2007). Addressing moderated mediation hypotheses: Theory, methods, and prescription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2(1), 185-227.
- Próspero, M., & Fawson, P. (2010). Sexual coercion and mental health symptoms among heterosexual men: the pressure to say "yes". *American journal of men's health*, 4(2), 98-103.
-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0-78.
- Ross, J. M., & Babcock, J. C. (2009). Proactive and reactive violence among intimate partner violent men diagnosed with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Family Violence*, 24(8), 607-617.
- Schumacher, J. A., & Leonard, K. E. (2005). Husbands' and wives' marital adjustment, verbal aggression, and physical aggression as longitudinal predictors of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1), 28.
- Schumacher, J. A., Feldbau-Kohn, S., Slep, A. M. S., & Heyman, R. E. (2001). Risk factors for male-to-female partner physical abus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2-3), 281-352.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6). A behavioral systems approach to romantic love relationships: Attachment, caregiving, and sex. *The new psychology of lov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Shaver, P. R., & Mikulincer, M. (2007). Adult attachment strategies and the regulation of emotion. *Handbook of emotion regulation*. New York: Guilford Press pp.446-465
- Simpson, J. A., Rholes, W. S., & Phillips, D. (1996). Conflict in clos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5), 899.
- Stets, J. E. (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The role of interpersonal control.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97-114.
- Stets, J. E. (1992). Interactive processe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65-177.
- Stuart, G. L., Moore, T. M., Hellmuth, J. C., Ramsey, S. E., & Kahler, C. W. (2006). Reason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ion among arrested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2(7), 609-621.
- Swan, S. C., Gambone, L. J., Caldwell, J. E., Sullivan, T. P., & Snow, D. L. (2008). A review of research on women's use of violence with male intimate partners. *Violence and victims*, 23(3), 301.
- Tolman, R. M., & Bennett, L. W.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 Tucker, J. S., & Anders, S. L. (1999). Attachment style, interpersonal perception accuracy,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dating coupl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5(4), 403-412.
- Wekerle, C., Wolfe, D. A., Hawkins, D. L., Pittman, A. L., Glickman, A., & Lovald, B. E. (2001). Childhood maltreatment, posttraumatic stress symptomatology,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Considering the value of adolescent perceptions of abuse and a trauma mediational mode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3(4), 847-87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3). *Responding to intimate partner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HO clinical and policy guidelines*. World Health Organization.

1 차원고접수 : 2019. 09. 27.

심사통과접수 : 2019. 11. 12.

최종원고접수 : 2019. 11. 17.

Controlling Behavior as a Mediator between Adult Anxious Attach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Soojin Her

Bo Kyung Kim

Beom Jun Kim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controlling behavior mediates the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It was hypothesized that anxiously attached individuals show controlling behavior, which in turn, affects the likelihood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to occur. A total sample of 2,000 adults male completed self-report measures of Controlling Behavior, 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 Scale (ECR), and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as a part of a study on Violence Against Women conduct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Findings showed that anxious attachment, controlling behavior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were positively correlated. Also, mediation analysis showed that effects of anxious attachment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were fully mediated by controlling behavior.

Key words : Adult anxious attachment, Controlling behavior, Intimate partner violenc